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제 6차 김치(KIMCHI)신학세미나

“모슬렘권에도 이 복음을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목회자 35인 초청, 5월 30일 개최예배

우리교회 부설 국제선교와 교회개신한국연구원(KIMCHI /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에서는 제 6차 김치세미나를 5월 30일부터 열흘간 개최한다.

국제선교와 교회개신한국연구원에서는 1990년에 동구라파 7개국 지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시작한 이래 1991년에 중국어권 목회자, 1992년에 힌두교권 목회자, 1993년에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 그리고 작년에 러시아 목회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 금번 제 6차 김치 신학세미나에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모슬렘권의 교회 지도자 35명을 초청하였다.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나라 교회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 세미나의 목적 중 하나이다. (사진 / 제5차 김치세미나에 참석한 러시아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한 산상기도회에서)

신앙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타문화권에 들어가 사역하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선교전략이라고 보고 세계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나라 교회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 세미나의 목적이다.

김치세미나의 제반 경비는 성도들이 자원하여 바친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별히 기도의 후원과 영어로 안내하는 일 등의 봉사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국복음화를 책임질 지도자들에게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폭넓은 신학 지식과

안내하는 일 등의 봉사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 6차 김치 신학세미나 프로그램

	5. 29.(MON)	5. 30.(TUE)	5. 31.(WED)	6. 1.(THU)	6. 2.(FRI)	6. 3.(SAT)	6. 4.(SUN)	6. 5.(MON)	6. 6.(TUE)	6. 7.(WED)
5:30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Dawn Prayer for Pakistan & Bangladesh									
6:00	개인경건의 시간 Private Quiet Time									
7:00	방글라데시목회자 도착 Arrival (Bangladesh)	아침식사 Breakfast						기자회견 Press Interview	아침식사 Breakfast	
8:30	자유시간 Free time									
10:00	강의 I Lecture I	강의 II Lecture II	강의 III Lecture III	강의 IV Lecture IV	강의 V Lecture V	교회학교탐방 Sunday School	강의 VI Lecture VI	강의 VII Lecture VII	강의 VIII Lecture VIII	
10:50	휴식 Intermission									
11:10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주일 예배 Worship Service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토의 Discussion	
12:00	점심식사 Lunch									
13:00	올림픽공원 Olympic Park	시내관광 City Tour	교회방문 Churches	신학교 방문 Theological Seminary	산상기도 Mountain Prayer	간증 Testimony	목회자세미나 참관 Pastoral Seminar	기독교대학, 기독교방송국 방문 Univ. CBS	강의 IX Lecture IX	
15:00	국가별전략회의 Nat'l Strategy Meeting									
18:00	저녁식사 Dinner									
19:00	파키스탄 목회자 도착 Arrival (Pakistan)	환영만찬 Welcome Dinner	국가별 모임 Nat'l Meeting	자유시간 Free Time	다락방 참관 Upper RM Study	묵상의 시간 Meditation	자유시간 Free Time	교계만찬 Dinner (Ch. Leaders)	만찬 Dinner	폐회예배 Closing Worship
20:30	그룹기도 Group Prayer									
21:00										

* 6. 8.(THU) - 파키스탄 목회자 출국 Lv. for Pakistan * 6. 9.(FRI) - 방글라데시 목회자 출국 Lv. for Bangladesh

창세기
강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22장 13 ~ 14절)

이종운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로, 이는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준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제단 위에 묶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에 이를 저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수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삼도록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죽어야 할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 위해 제공하셨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무한하신 섭리와 뜻을 살펴보면 은혜를 기다립니다.

1.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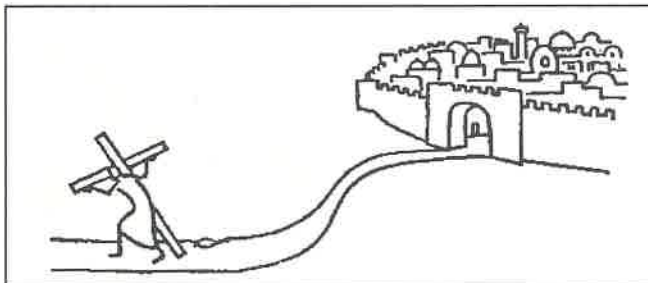
'이레'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히브리어의 '라이'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to see)'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의미가 매우 넓어서 '맛을 본다, 눈으로 본다' 등 스물 여덟 개나 되는 뜻이 사전에 나와 있는데, 영적으로 깨닫는 것도 이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아본다, 깨닫는다, 이해한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라는 '이레'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레'는 역사와 개인의 운명과 모든 것을 뜻하신 바대로 지배하시며 작정한 시간에 그 뜻하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어찌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언행심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입니다. 죄를 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무능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2. 하나님의 어린양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어린양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대하 3:1). 아브라함 때에 광야였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



을 세울 계획과 그곳에서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 속죄제를 지낸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메시아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한 이삭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매우 의미있는 것입니다. 모세, 다윗 그리고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묻고 또 물었던 메시아에 대해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유월절에 희생된 수많은 양들은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한 제물이었지만 예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양이십니다.

3. 준비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이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땅임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이레'에서의 '이레'와 평강을 뜻하는 단어 '샬롬'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레 샬롬', 곧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제공하시는 평화의 도성인 것입니다. 갈보리산 언덕에 높이 세워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동시에 나타남으로 우리의 화목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안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하기 얼마 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4:19)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는 바울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실 것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객관적 가치 추구의 삶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따라서 아무도 그것을 조작하거나 바꾸어 놓을 수가 없다. 우리는 언제나 객관적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와 자세를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 방향과 미래적 의미를 항상 물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묻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나를 위하여 어떤 결과가 되기를 바라기 쉽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며 바람직한 것은 되지 못한다. 나에게 악간의 고통이 오더라도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판단 되었을 때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 우리들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면 양보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사회악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전체와 미래를 보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자.



제6차
김치세미나를
준비하며
⑦

이슬람,
모슬렘,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슬람'이란 말은 하나님께 복종을 의미하며 모슬렘은 이슬람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모슬렘은 무엇을 믿는가?

모슬렘은 알라(Allah)를 믿는다.

모슬렘들에게 있어서 알라는 유일하고 전능하며 모든 모슬렘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전능한 신이다. 이슬람 신앙에 있어서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다섯가지 강령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 ① 신앙고백(shahada) -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모하메드는 알라의 선지자다. 모슬렘들은 이슬람의 계시가 모하메드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대한 예언자로 섬긴다. 모슬렘에게 있어서 '모하메드'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칭호이다. 모하메드는 570년 아라비아 메카에서 태어나 632년에 사망했다.
- ② 기도(salat) - 하루에 다섯번씩 한다.
- ③ 구제(sakat) -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푼다.
- ④ 금식(saum) - 특별히 라마단 기간(30일간)동안 해있는 동안 행한다.
- ⑤ 성지순례(hajj) -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한다.

위의 다섯가지 강령을 다 지킨다고 모슬렘에게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의 구원은 자기 외에 기초한다. 모슬렘은 심판의 날에 알라(또는 천사)가 각 사람의 행위를 저울로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가 악한 일을 한 것보다 더 무게가 나가기를 원하지만 알라의 심판 조차도 공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알라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사람의 행위를 적어 놓은 책을 알라가 심판날에 들춰보고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여 우편과 좌편으로 사람을 갈라 놓을 것이라고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가는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은 이슬람의 성전(聖戰, Holy War)에서 순교하는

것 뿐이다.

모슬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신성도 믿지 않는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그의 아버지는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믿고 있다. 코란에서 예수는 단지 선지자 12만 4천 명 중 한명일 뿐이다.

모슬렘에게도 이 복음을!

모슬렘이 무엇을 믿고 따르는가를 살펴보는 이유는 종교를 비교해 보는 데에 있지 않고 사람들을 주 예수의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모든 모슬렘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의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고 순교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죄사함의 소망은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그러나 모슬렘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일에는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만이 이일을 가능케 한다.

우리는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잉태한 후 사막으로 도망하는 사건을 볼 수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하갈에게 여주인 사래에게 돌아가라고 말했고, 하갈은 그곳을 '브엘라헤로이(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모슬렘의 신 알라는 멀리 있는 비인격적인 신이다. 그들이 유일신이신 참 하나님만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우시고, 그들 중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임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모든 모슬렘들을 사랑하신다. 모슬렘권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모슬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이다.



◀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에는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고자 하는 각오를 새로이 하며 새 힘을 얻는다.



1995년 부활절



▲ ◀ 교회학교에서는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부서별로 가졌다.

◀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걸기를 소원하며 (성찬식 / 1. II, III부 예배)

저녁 찬양예배 시에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관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는 부활절 칸타타 "할렐루야 구세주께"를 연주하였다.

■ 광야의 소리 ①

『과학의 날』에 드리는 찬양

과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과 더불어 16세기에 이르러서였다고 한다. 그것은 기독교가 제시한 바 세상을 조망하는 시각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번개가 치는 것을 신의 진노나 신의 무기 정도로 생각했을 때에는 번개현상을 조사하는 일은 신성 모독이며 위험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언명한 창세기 1장에 대한 믿음과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하나님은 우주의 일부가 아니요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과학은 놀라운 발전의 도상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과학의 발전이란 여태껏 제기된 다양한 이론들 가운데 실제 관측된 우주와 부합되지 않는 것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한 어떤 그리스도인 과학자의 말처럼 과학은 자연발생적 어떤 원인, 즉 창조된 실체의 질서에 내재하는 어떤 원인의 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규명될수록, 즉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세계를 유지시키시며 그 운행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게 발견하게 된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것으로 인해 규명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오묘한 질서 속에서 운행되는 것과 우리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신묘마축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으며, 우주의 질서 속에서 우리를 임의로 방치해 두시지 않고 인간과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1995. 4. 21. 과학의 날에

■ 광야의 소리 ②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필요한 것

건강한 사람은 사랑의 수고로, 장애인은 자활의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는 400만을 헤아리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의 날이 되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입학 기준을 조정하고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운위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 개선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며, 그들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한다. 예전에 비하면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청각 장애인이 미스 아메리카로 뽑히기도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이 대학교수가 되기도 하여 인간 승리의 본을 보여주었다. 심각한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함축된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훌륭히 전하는 이들은 오히려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 줌으로써 큰 교훈을 주기도 한다. 이제 많은 이들이 장애를 부끄러운 것이라기보다 '불편한 것' 정도로 인식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몸에 장애가 있는 이들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셨다.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고,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부활과 영생이 모두 동등하게 주어질 것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복음은 아무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장애인을 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들 역시 장애를 대우받아야 할 특권으로 생각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동정이나 도움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베푸는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장애인의 날. 건강한 사람이라면 매일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 임을 기억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결심하는 날이 되어야 하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 보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 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 ㉔ 4월 24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요나단 에드워드의 영성(S. 로간 박사)
 ***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월)은 휴강합니다.***
- ㉕ 5월 8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성령운동과 영성(김의환 박사)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 6차 김치 신학세미나의 준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2.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새로와 질 수 있도록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4. 장애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창조함을 받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

